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전북지역 기자회견담회가 지난 31일 전주시 원산구 효자동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해찬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당권주자 이해찬, 전북서 표몰이

“문 대통령과 격의없는 사이”... 기자회견서 민주당 대표 책임자 강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가 표몰이를 위해 지난 31일 전북을 찾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격의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튼튼한 이해찬, 강한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관이 교체됐고 남북관계 개선, 영호남 지역갈등 해소 등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주고 연속해서 집권해야 하는만큼 당을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화운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30년 가까이 지내

왔다”며 “총리 시절에 협의도 많이 했고 서로 격의없이 이야기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당 대표 경쟁 상대인 송영길 후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송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보다 선배였고 더 윗사람 아니었느냐.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공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책에 대한 비전, 삶에 대한 자세, 공인으로서의 자세, 전문

성, 지역 평가 등 객관화된 공천 기준을 만들어놓고 기준에 의해 자격 심사를 해야 한다”며 “안정된 기준을 만들어놓고 자격심사를 벌여 능력있는 사람들끼리 경선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세력 심으려고 이상한 공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나쁘다”며 “제일 좋은 공천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다”고 덧붙였다. 전북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전북의 어려운 실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김병준 “협치 내각, 정책적 방향 전환돼야”

김병준(사진)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지난 31일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과 관련해 “장관 한두 명을 앉히는 것으로 소용이 없고 정책적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잘못 짚은 것 같으니 새로운 방향을 짚자면, 그런 게 답장 없으니 협치라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보수 가치 재정립과 관련해 “보수도 하나의 보수가 아니라 보수 안에 흐름이 있다”며 “꼭 규정

하기보다 강조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정부가 국가가 많이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경제 문제에 치중하고 있는데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이야기할 것”이라며 “개별 사안보다는 전체적인 기조를 잡는 게 중요하다. 평화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확장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속에서 판문점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세목 안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과세를 낮춰서 부동산 전체 세 부담을 같이



하면 대안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둔 당내 일부 비판에 대해선 “제가 사회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새로운 가치, 정책을 걱정하고 사회에 서로 보수 진보, 좌우 등 나눠있는 것을 실질적 가치 논쟁과 정책 논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나누고 있는 선을 넘기 위한 새로운 가치와 정책 논쟁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다. /뉴스

## 전북형 남북교류협력으로 ‘평화 통일’ 성큼

제11대 도의회 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성경찬 선출, 2020년까지 활동 돌입

전북도의회는 지난 31일 의정실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장에 성경찬 의원(고창1)이 선출됐으며, 위원은 국주영(전주9)·김철수(정읍1)·이병도(전주3)·최훈열(부안)·박희자(더

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당연직에 한준수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등 7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오는 2020년 6월말까지 도의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의 활동을 펼친다. 성경찬 위원장은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갈등 관계가 아닌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큰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북도가 추진 가능한 인도적,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그만둬야”

임태훈, 성정체성 발언 대한 추가조치 계획 등 밝혀

임태훈(사진) 군인권센터소장은 지난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언급하며 군인권센터를 비난한 것에 대해 “정치적 행위를 비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니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한국 국민 중에는 많은 소수자가 있고, 그분들을 보수가 안 알아볼 책무가 반드시 있다. 모두 다 세금을 내고 있고 그분도 국민인데 그럼 이 땅을 버리고 난민신청하라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선수 높은 의원이 할 소리는 아니고 초선에서 이해는 하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는데 이런 방식이면 총선에서도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은 당시 정 부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한국당은 위헌정당의 모멸을 벗어날 수 없다. 해산 대상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군 개혁문제는 군에 다녀온 사람만 이야기해야한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임 소장은 “북에 가아만 북한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한국당 의원 중 방북한 사람 거의 없지 않나”면서 “그럼 북한 인권 이야기하지 말아야한다. 말장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의 성정체성 발언에 대한 추가조치 계획에 대해 “누구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매우 안타깝다”면서 “그래서 북한권을 보내드려서 학습을 하게끔 해드려야 하나(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똑똑한 분들에게 인권교육을 새로 해야 하나 참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 자리에 동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한국당은 계엄령 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듯 한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문제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끌어들이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소위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스

### 이개호 농축산부 장관 후보자 검증대 오른다

8월 9일 국회서 인사청문회

이개호(5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8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장관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기에 농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 후보자가 쌀수급 문

제,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등 현안을 해결하고 농림축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책임자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전남 담양 출신의 이 후보자는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의 길을 걸었고, 전남도청 자치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전남도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했다. 2014년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 후보자는 이후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뉴스



전주매일 금연캠페인